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
보도	2024.2.28.(수) 석간	배포	2024.2.27.(화)
-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임종건	(02-3145-7920)
	외환감독국 외환건전성감독팀	담당자	팀 장	곽원섭	(02-3145-7928)
	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	책임자	과 장	김희재	(044-215-4730)
		담당자	사무관	이동훈	(044-215-4736)
	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시장팀	책임자	팀 장	김신영	(02-759-5967)
		담당자	과 장	조현명	(02-759-5968)

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에 따른 다음날 새벽 외환거래는 당일기준으로 회계처리 가능합니다.

주요 내용

□ '24.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9:00~15:30 에서 9:00~다음날 2:00 로 연장*됨에 따라

*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은 '24.7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가 및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정식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('23.2월, 11월)

○ 국제적 정합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(T+1일) 24:00~2:00 외환거래를 당일(T일) 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

- 다만, 결산일의 회계처리 및 결산일이 아닌 평일의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데이(Calendar day, 역일(曆日)) 기준으로 계산

□ (향후계획)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및 「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」 개정 및 다음날 새벽 외환거래의 회계처리 관련 「가이드라인」을 마련하여 후속조치 추진 예정

1. 검토배경: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시 규제 불확실성 존재

- 외환당국(기획재정부·한국은행)은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 까지 연장하기로 하고, '24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'24년 7월부터 정식 시행하기로 하면서
 - 거래연속성 및 거래상대방 소재지역 등을 감안하여 은행간시장에서의 당일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거래를 당일(T일)로 처리하기로 하였음
- 이와 관련하여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기관들이 캘린더데이를 기준으로 다음날(T+1일)인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발생한 외환거래의 회계처리도
 - 당일(T일)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는 기준이 없어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음
- 이에 금융감독원은 24시간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선진국 등과의 국제적 정합성 및 국내 금융회사의 자율성·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
 - 다음날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(T일)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마감시간 기준을 마련하였음

2. 다음날 새벽에 발생한 외환거래의 회계처리기준

-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이후까지 연장되더라도,
 - 은행 등이 다음날 영업개시 전 일정시점을 마감시간으로 정하면, 마감시간 이전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

- 다만, 결산일에는 다음날 24시 이후의 외환거래는 당일이 아닌 다음날 거래로 인식하는 등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
- 또한 결산일이 아닌 평일이라도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함

3. 후속 조치 및 기대 효과

- 그간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약 6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3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, 외환당국 등과는 회계처리기준 적용방안을 논의하였으며
 - 이를 토대로 마련한 상기 회계처리기준에 대해서는 '24.2.22.(목)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였음
 - 향후 금융감독원은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과 「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」 개정을 통해 회계처리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,
 - 세부적인 내용을 「가이드라인」에 반영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임
-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기관들은 거래통화, 거래상대방 및 시간대별 거래량 등 각 사의 사정에 따라 당일의 외환거래 마감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
 -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시간 외환거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-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외환당국 및 외환시장 참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임